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2회>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될 텐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겠느냐

10월 :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겼나요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일곱째 천사는 늘 초초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고도로 사모하는 생활로 일관하였습니다. 일 초 일 초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안에 행복 누림'으로 마음속 풍광이 안정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여 나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기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했다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단계에 돌입하자, 해와 이긴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기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니, 해와 이긴자는 말하지 않는 의심죄에 떨어졌다고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내가 기도한 것이 되므로 '하나도 안 말겠다고 떨어졌'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때는 해와 이긴자는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전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지적하셨지만 정작 내가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그 근본 이유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처럼 영의 세계는 그 올라가는 단계에 따라 그 어느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때는 둘째 아담 이긴자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사실

을 깨냈기에 내가 행하는 것은 마귀 안에서 행했다가 되므로 죄가 된다고 온전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려고 애걸복걸 매달렸으나 번번이 안 말겠다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때는 해와 이긴자는 제대로 말긴 것인지만 말긴 것인지 분별하는 영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온전히 말기는 방법을 알지 못한 단계에 계셨던고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인을 때는 아담 이긴자는 하나님께 말기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기는 과정 중에 혹시 내가 말긴 부분이 있다면 치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많이 쏟았는데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온전히 말기는 단계에 이르자, "이제는 내가 이겼다." 하여 1차로 1980년 2월 초순경에 허락을 받고 전도하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니 일곱째 천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불을 받고 향취가 나고 생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이 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러 다닌 지 두 달째 되던 4월 초에 소래면 신천리 일대를 돌다가 하루는 은항리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니 유장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유장로에게 성경적으로 새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 그 자리에서 탄복하고 불을 받는 것입니다. 불성신을 받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유장로는 "내일 다시 우리 집에 방문해주십시오." 하고 일곱째 천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유장로의 집을 찾아가니 이번에는 유장로가 그의 부인과 함께 일곱째 천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내외분이 일곱째 천사의 진리 말씀에 매우 감복하니 "내일 또다시 우리 집에 방문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유장로는



빨간 벽돌로 지은 은광 장로교회. 그림 박준구 장로

성경에 대해 너무나 해박한 일곱째 천사를 목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는 유장로를 전도하기 시작한 지 3월째 되던 날에 유장로의 집에 갔더니, 유장로가 소변으로 피를 쏟은 요강을 들고나오면서 "조 목사님, 조 목사님, 나 이렇게 피를 많이 쏟았는데 이거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바로 유장로님 속에 있는 죄가, 핏속에 있는 죄가 다 쏟아진 겁니다. 감사히 여기십시오." "어쩐지 목이 가뻍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죽은 시체라고 가르쳐주니까 그 유장로는 좋아서 아쩔 줄 몰라 하면서 "조 목사님, 잘 따라오세요." 하고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은광 장로교회 건물 앞에 딱 서더니, "내가 이 교회를 지었고 내가 지금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조 목사님이 교회 단상에서 설교도하시고 이 교회를 조 목사님께 바칠 테니 조 목사님이 마음대로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장로가 애써서 세운 은광 장로교회는 전부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니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일곱째 천사가 말하고 또 "그러면 이 장로교 간판을 떼어버리고 전도관 간판을 붙이세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장로가 무조건 "네." 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당장 유 장로와 그 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장로교 간판을 도끼로 찍어 쪼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예수 교회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관 간판으로 바꿔 달고 개관 예배를 보게 되었을 때, 당시 기성교회 측 한국복음전도회 회장이었던 신영균 목사를 주축으로 차재복 장로 등이 일곱째 천사를 만나 전도를 받았습니. 예배를 다 보고 나서는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랍고도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의 말씀을 듣고 기성교회 하나가 송두리째 간판을 바꿔 달고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차재복 장로 등은 여의도 광장같이 넓은 데서 대규모 부흥집회를 갖게 되던 말미 않아 이 세상이 전도관 천지가 되었다며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좋아하는 음란죄를 짓어!

이렇게 기성교회 하나를 통째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넘어오게 했으니, 일곱째 천사는 신바람이 나 가지고 좋아서 춤을 추다시피 하면서 밀실을 향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고갯길

을 돌아 밀실 정문이 바라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와 이긴자가 문 가까이 서서 일곱째 천사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저 마귀새끼, 들어오지 못하게 밀실 문을 잠그라!"
"해와 주님,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너는 좋아하는 음란죄를 짓어!"
"좋아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럼, 좋아하는 것도 죄지!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어째서 죄가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일곱째 천사는 언뜻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온 전신에 맥이 풀리며 그냥 그 자리에서 신사 양복이 흠이 묻거나 말거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 길을 감니까? 좋아하는 것도 음란죄라면 어떻게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에 해와 이긴자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밀실 정문 입구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밀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해와 이긴자의 명령을 받았는지 청년 하나가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천사는 자신이 거처하는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야, 이 길은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길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밀실에 들어올 때에는 내가 이긴자가 되어서 나가면 나가지 이긴자가 되지 못하면 죽어서 나오리라고 결심하지 않았던가!'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자 이 틈을 타고 마귀가 점령해 들어와서는 '그래, 너는 이긴자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이긴자가 될 수가 없으니,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차라리 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어.'라고 생각을 주장한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숙소 앞에는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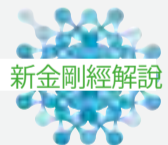
하나님이 다급하시어 영모님의 몸을 입고 나타나심

이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무서워 기막히고 그 슬픔은 어디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목매달아 죽을 끈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모님의 몸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서 두 손을 붙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성급하게 왜 그러는 거야?"라고 질책하시며 목을 놓고 우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도 같이 흐느껴 울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을 괴롭혀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같이 통곡을 한참하고 나니 영모님이 우시면서 간간히 하시는 말이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기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일곱째 천사는 마음속으로 '이 몸과 생명 전체를 모두 하나님께 맡겼으니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데 죽으려고 했으니 내가 또 죽음을 지었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죽을 마음을 고쳐먹고 참고 견디어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모님이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 죽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 출발을 해, 거의 거의 다 되었어. 조금만 참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 第二十六

須菩提白佛言
수보리백불언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세존 여어해불소설의
不應以三十二相觀如來
불응이삼십이상관여래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절대로 32가지의 모습으로는 (석존을) 여래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해석] 그러므로 출가 사문이었던 석존은 부처님의 상징이신 32상을 가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자인 수보리는 석존의 모습을 바라보니 부처님의 상징이 아니므로 부처로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존은 이 금강경의 앞에서 말씀한 부분을 다시 또 뒤에서 반복하여 말씀하면

서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라고 한 말씀처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진실한 가르침이 지금까지 불교계나 또는 이 금강경을 해설한다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해설이며 이 금강경을 부처님의 지혜로 볼 때 비로소 석존의 참뜻을 이해하여 진실한 믿음과 자기의 수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사구계(第三 四句擧)

爾時 世尊而說偈言

이시 세존이설게언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약이색견야 이음성구아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이 때에 세존께서 계(偈)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색상(기존의 불교의 모습인 불상과 절)으로 나(법신 부처)를 보거나 소리(염불과 목탁소리 등)로써 나(법신 부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49>

체)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탄 도를 행하는 사람이므로 여래(미륵부처님)를 볼 수 없으리라.

[해석] 현재의 세상에서는 여래를 32상으로나 또는 외형이나 음성으로 보거나 듣고서는 여래(미륵부처)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32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석존의 몸이 나타난 상징적인 형상으로 미래의 법신불인 미륵부처와는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의 사구계를 살펴보면 참으로 이 금강경에서 아래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색상으로 나를 보지 마라(若以色見我)

이 계송의 뜻은 즉 나(법신불)를 몸체의 외형으로 찾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우리 불자들이 고정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사문의 스님이 아니므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버린다고 하면 기존의 불교의 모습이 아니므로 절도 아니고 불상의 모습도 아닌 재가

자(在家) 곧 우리 일반 대중에서 불법의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나오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경의 앞장에서 석존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왕이 곧 미륵부처님이라고 했듯이 전문성왕은 기존의 불교가 아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불도를 이루어 오신다고 했으니 스님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② 음성으로 나를 찾지 마라(似音聲求我)

이 계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음성(音聲)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말하지만, 음성의 본래 뜻은 모든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상을 버리고 바로 본대(正見)면 스님들과 절에서 듣는 염불, 목탁, 징, 북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이미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있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계통의 신도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불교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는 60억 명의 인류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다음이 이슬람교입니다. 불교는 사실 아시아권 일부만 있을 뿐이며 인도는 사실상 힌두교를 믿고 불교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보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교의 모습이 아닌 기독교의 뿌리로 오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보면 불교 식구들은 거부감이 울 수도 있습니다.

③ 이 사람은 사탄 도를 행한다(是人行邪道)

그러므로 이 구절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금까지 고정관념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상으로 "절이나 스님이 아니면 미래의 법신불(法身佛)인 미륵부처가 없다. 또는 스님들이 아니면 불도를 이룰 수 없

다."라고 하는 아만심(我慢心)과 허상에 매달려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도를 행한다는 뜻은 미륵부처님에 대해 알기를 사이비이다 이단이다 하면서 신도들에게 거짓된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출현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오만한 행위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높은 아상으로 천대(賤待)와 비방(誹謗)을 한다는 뜻입니다.

④ 여래(미륵부처)를 볼 수가 없다(不能見如來)

이 구절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틀림이 없는 것으로 석존께서 우리 불자를 위해 깊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 3000여 년 전에 이 금강경을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간곡하고 직설적인 말씀으로 당부하는 것은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석존의 허망한 유행의 법(有爲法)에 매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明鍾